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⑱ 경주 남산 용장사지

▶한줄 요약
불국정토를 대표하는 경주 남산에서 꼭 참배하길 권하는 최고의 불교문화유산이 있다. 금오봉 정상에서 서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삼층석탑과 마애여래좌상 그리고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용장사지다.



독창미 넘치는 통일신라 석불·석탑

경주 남산을 대표하는 한 곳을 꼽으라면 세 가지 경이로움을 품은 '용장사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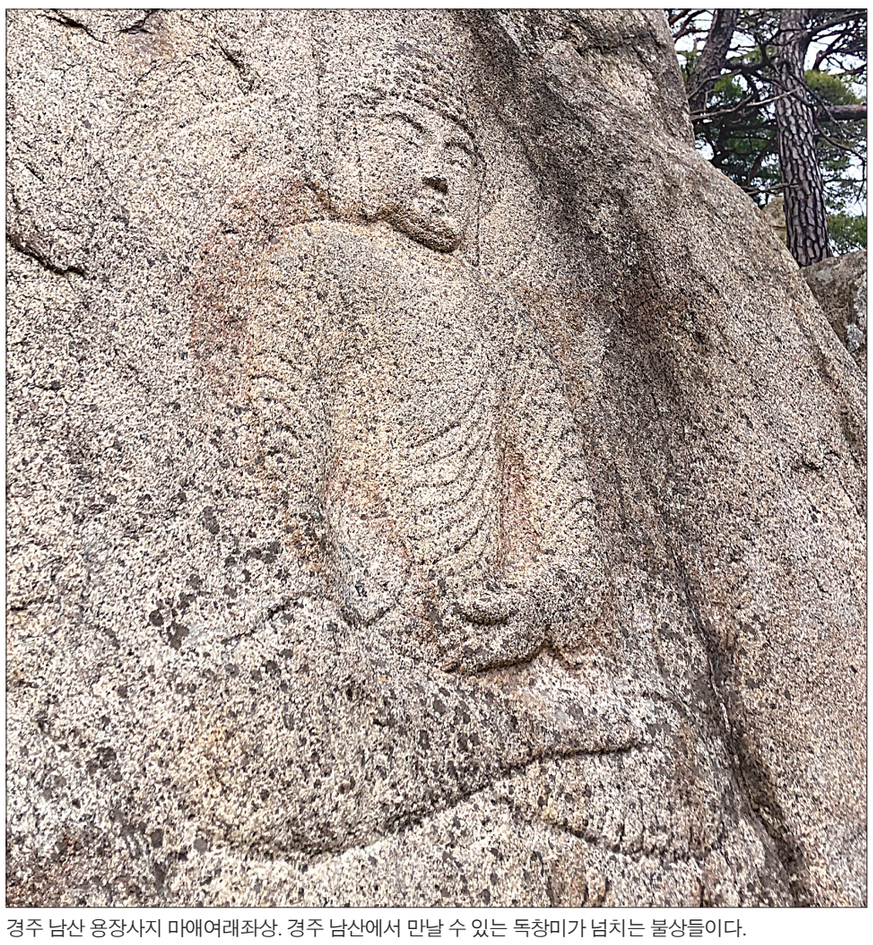
불국정토를 대표하는 경주 남산에서 꼭 참배하길 권하는 최고의 불교문화유산이 있다. 금오봉 정상에서 서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삼층석탑과 마애여래좌상 그리고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용장사지다. 남산 등산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곳 용장사지에 온다면 탑과 불상과 풍경의 경이로움과 환희로움에 피곤이 사라질 것이다. 이곳을 참배한다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자리에 앉아 잠시 명상에 들어야 한다. 경주 남산 불국정토의 모든 기운이 가슴 안에 꽉 찰 것이다. 또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내려오다 보면 여러분은 소원 하나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확신이 들것이다. 부처님 가피의 힘이 무량할 것이란 확신을 들게 하는, 남산이 받침 기단인 세계에서 가장 큰 삼층석탑과 듬직한 마애여래좌상과 경이로운 석조여래좌상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소원성취를 이루고 싶은 불자는 용장사지 삼층석탑과 두 불상은 꼭 참배하길 바란다.

한국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멋진 석탑을 꼽으라면 불국사 다보탑이나 석가탑이 꼽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독창적이고 멋진 석탑을 꼽으라면 용장사지 삼층석탑을 꼽을 것이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독창적인 석불을 뽑으라면 당연히 이곳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을 꼽을 것이다. 산을 기단으로 중생계를 내려다보는 용장사곡 삼층석탑과 둥근 세 개의 단과 좌대 위에 연화 좌대가 있고 가사를 깔고 앉은 석조여래좌상은, 중국이나 일본 아니 그 어느 불교국가를 가더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전 세계 유일한 석탑과 석불이다.

한국의 불교 유형문화유산 중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불교 문화유산은 통일신라시대인 8~9세기에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 조성된 독창적 문화유산 둘을 소개하자면 먼저 한국의 가장 독창적인 사리탑인 구례 지리산 화엄사의 사사자삼층석탑이 있다. 네 마리 사자가 석탑을 받치고 중앙에는 불보살이 있으며 그 앞에는 공양인물상이 석등을 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8세기 중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사리탑이다. 다음으로 여래의 머리에 지권인을 한 화엄의 본존불상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200~300년은 앞서서 조성된 독창적 불상이다. 지권인을 한 화엄의 비로자나불상은 신라인이 조성한 독창적 불상이다. 이처럼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불교 문화유산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용장사지로 가보자. 남산 정상 금오봉에서 용장사지 쪽으로 가다 보면 미끄럽고 조심을 요구하는 내리막길이 나온다. 조심조심 온몸을 산에 기대며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구나 다들 감탄의 외침을 하게 된다. 남산을 기단으로 저 밑 중생계를 굽어 살피는 웅장한 삼층석탑이 모두를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용장사곡 삼층석탑은 높이 4.5m로 해발 400m의 금오산 정상 부근에 세워져 있다. 8~9세기 중반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용장사곡 삼층석탑은 1922년에 무너져 방치된 것을, 지금의 원래 자리에 복원하였다. 이후 도굴 시도로 2001년 상층의 기단이 피해를 보아 해체하여 보수하였다. 일제강점기 작성된 도면을 보면 2층 몸돌 윗면에 길이 15.2cm, 깊이 13.1cm의 방형 사리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오봉 내려가면 세상 굽어보는 석탑 만나
남산을 기단으로 만든 삼층석탑 위용 '감동'
매번 절을 올리며 '불도를 이루리라' 기원
석탑 옆 계단 따라가면 만나는 마애여래상
힘 있는 부처님 얼굴, 근엄한 자태에 숙연



경주 남산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경주 남산에서 만날 수 있는 독창미가 넘치는 불상들이다.

용장사곡 삼층석탑은 경주 남산 전체를 기단으로 서 있는 석탑으로 일명 세상에서 가장 큰 석탑이라 불린다. 기단을 산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다. 신라의 석탑은 삼층석탑이 대표하는데 각 층의 탑신인 몸돌 밑 기단은 보통 이중 기단의 형식을 취한다. 용장사곡 삼층석탑의 1층 기단은 경주 남산을 기단으로 서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석탑으로 불리는 것이다. 참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곳에 어떻게 이런 웅장한 석탑을 조성했을까'하는 놀라움이 든다. 주위에 있는 바위를 다듬어서 조성하였을 것인데, 남산 정상에서 생활하며 석탑을 조성한 석공은 그 정성으로 정토에 가는 수기를 미륵부처님께 받았을 것이다. 나는 올 때마다 석탑 기단 바위에 머리를 조아리고 미륵부처님께 기원을 올린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다음으로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은 높이가 1.6m 정도이며 용장사곡 삼층석탑 옆으로 난 데크 계단을 내려오면 오른쪽 옆 바위의 뒤쪽에 새겨져 있다. 부처님 두상의 나발이 남산의 다른 불상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며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옷은 두 어깨를 감싼 통견의 양식을 취하고 있고 연화 좌대 위에 앉아 있다. 용장골을 내려다보고 있는 얼굴은 턱에 군살의 주름을 표시했고, 전반적으로 둥그스름해 풍만한 분위기를 보인다. 꽉 다문 입술과 큰 코, 힘 있는 얼굴에서 근엄한 분위기가 풍긴다.

옷 주름이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삼륜 석조여래좌상보다는 조성 시기가 뒤로 가는 9세기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왼쪽 어깨 옆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흔적이 보이는데, '太平二年八月…'로 확인되었다. 태평 2년은 중국 송나라 태종의 연호로 보면 977년이 되고, 요나라 성종의 연호인 태평이면 1022년이 된다. 다른 명문은 너무 닳아 있어서 판독하지 못하여 연도가 명확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통일신라시대 8~9세기 조성된 용장사지의 불상에 고려 초기 명문이 새겨진 이유가 무엇일까?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의 양식은 고려 초기의 양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장사지의 삼층석탑과 석조여래좌상은 분명 8~9세기 조성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도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왜 명문에 태평 2년이 새겨진 것일까?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구층석탑의 명문을 보면서 이러한 해석을 해본다.

월악산 송계계곡 길을 쭉 올라가면 사자빈신사지의 사사자구층석탑이 있다. 이 탑의 기단에는 고려 월악산 사자빈신사에 원적(怨敵)인 요나라가 사라지길 기원하며 태평 2년 4월에 석탑을 조성하여 기록한다는 명문이 있다. 고려 현종과 강감찬은 1019년 귀주에서 요나라의 대군을 물리친다. 고려가 명운을 걸고 싸운 여요전쟁(麗遼戰爭)을 마무리하는 승리였다.

그러나 고려는 이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렇기에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이 원적을 물리치길 기원하며 조성한 것처럼, 1022년 사자빈신사에 구층의 석탑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1022년 경주 남산 불국정토의 최고 사찰인 용장사의 마애여래좌상에도 이와 같은 기원의 명문을 새긴 것은 아닐까 싶다. 비약이 심한 이야기지만, 문헌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옛 유적의 해석은 개인의 몫이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은 마애여래좌상에서 고개를 돌리면 서 있다. 석불좌상의 총 높이는 3.4m로 대좌는 2m이고 불상은 1.4m이다. 석조여래좌상의 세 개의 둥근 연화문 좌대와 둥근 받침은 유례가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불두는 오래전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대 발견 당시 사진에는 이미 불두는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다.

1924년 조선총독부에서 쓰러져 있던 불상과 삼륜 좌대를 세웠으나 다시 무너져서 1932년 무렵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삼국유사〉에 용장사의 대현이 미륵불을 돌면서 수행했다는 이야기에서 불상은 미륵불상으로 보인다. 또한 도상을 분석하여 '승형석불상'이나 '보살형미륵상'이라는 등 여러 의견이 있다.

유가종(瑜伽宗)의 개조 대현대덕은 남산의 용장사에 살고 있었다. 그 절에는 미륵불의 석조 장륙상이 있었는데 대현이 늘 불상의 주위를 돌면 불상도 또한 대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 —〈삼국유사〉 中

옷 주름이 사실적으로 조각된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에는 한국 석불상에서 보기 힘든 모습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삼릉곡 석조여래좌상에서 보이는 것 같은 매듭 장식의 술이 무릎에 늘어뜨려 있다. 가사는 사각의 천을 왼쪽 어깨에 고정해 두르게 되어 있다.

현대의 한국스님들의 가사는 왼쪽 어깨 부분에 고리가 있어 끼우게 되어 있는데, 용장곡과 삼릉곡 불상의 가사는 매듭을 지어서 고정하고 늘어뜨린 끝에는 술로 마감을 한 모습이다. 여기에서만 보이는 참으로 고급스러운 가사의 고정장치다.

두 번째는 삼륜의 기단이다. 커다란 바위 받침 기단 위에 복련의 좌대 같은 다듬은 문양을 새겨놓고, 그 위에 고복형 석등의 둥근 북 같은 기단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1단의 좌대와 다시 북 모양의 기단과 좌대와 기단 그리고 앙련의 연꽃 문양이 선명한 좌대가 올려져 있다.

세 번째로 삼륜 기단과 좌대 위에는 삼단 문양의 앙련의 연꽃 좌대가 올려져 있는데, 삼단의 연화 좌대에 가사를 깔고 불상이 모셔져 있다. 아주 독특한 삼륜의 좌대와 그 위에 가사를 깔고 있는 삼단의 연화 좌대 위에 미륵불상이 앉아 있는 모습이다.

불상의 앞에서만 본다면 가사 좌대만 보여 알 수 없다. 불상의 옆에서 보면 앞쪽에는 가사가 늘어져 있고 뒤에는 삼단의 연꽃 좌대를 볼 수 있다. 꼭 옆으로 가서 살펴보기를 바란다. 이러한 불상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라만의 불상이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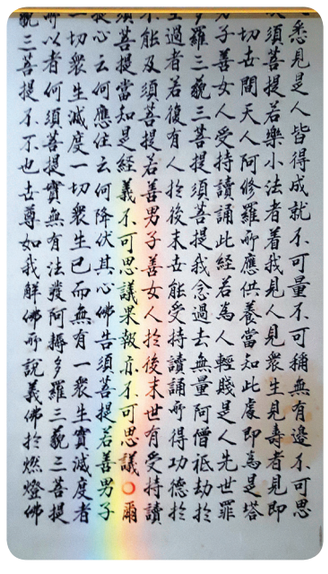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